

‘오지서 나홀로 근무’ 함평 주포분소 박인천 경사의 사는 법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주포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박인천(왼쪽에서 세번째) 경사와 부인 김순희(두번째)씨가 마을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인 10억’ 시골마을 파수꾼

함평경찰서 중앙지구대 주포분소, 경찰관 혼자서 주민들의 치안을 24시간 책임지는 오지마을 치안분소다. 주포분소의 유일한 경찰관은 박인천(38) 경사.

나이 드신 어르신을 대신해 자녀들에게 전화 걸어주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결혼할 시기를 놓친 노총각들에게 아름다운 신부감을 소개해주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 벌써 2쌍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박 경사가 하는 일
일손 돕고 독거노인들 말벗 돼주기
어르신 대신 자녀에 전화 걸어주기
노총각 중매 ‘사랑의 메신저’ 역할도

남들이 싫어하는 오지 근무를 하면서 박 경사는 오히려 도시의 각박함에서 벗어난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느꼈고, 시골 사람들의 정을 느끼며 어느새 ‘오지 전문’ 경찰관이 됐다.

주포분소로 근무지를 옮긴 뒤 부부 급습도 좋아졌다. 10년 전 손불과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부인 김순희(35)씨를 만나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는 박 경사는 “지구대 근무 때와는 달리 주말·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며 “자녀 교육도 직접 참고서를 구입해

개인지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남편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에 경찰관 1명만이 배치돼 치안업무를 맡는 분소는 모두 17곳. 이들 분소와 경찰서의 거리는 짧게는 5km, 길게는 60km가량 떨어져 있다.

‘묻지마 흉기 난동’ 6명 사망

서울 고시원에서 “살기 싫다” 30대 방화 후 칼부림

서울 강남에서 30대 무직자가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빠져나오는 투숙자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6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고시원 3층 자신의 방 침대에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8시 20분께 연기를 피하려고 복도로 뛰어나온 고시원 투숙자들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 “이전부터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살이 아니라 이반과 같은 범행을 꾸며 다른 사람과 함께 죽으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광주서 식당 주인 둔기 맞아 피살

원한 관계 추정 수사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둔기에 머리를 맞아 살해된 채 발견됐다. 20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H식당에서 주인 최모(6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김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살해된 최씨는 지난 19일 오전부터 혼자서 식당을 보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날 영업을 마친 이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로폰 공급·투약 3명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공판된 김모(45)씨와 유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필로폰 9.38g(약 300여회 투약분·시가 3천100만원 상당)을 판매 수산업 종사자인 유씨 등 2명에게 공급하고 필로폰 4.62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섭 담양군수 징역 5년 구형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상운)는 2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단 독 유승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정섭은 대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담양읍장 시절 또는 군수 취임 이후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3천500만원을, 관급 자격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천5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사고 2명 사상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무안군 청계면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모(71)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꺾로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씨가 자리에서 숨지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던 정씨의 아내(72)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and services.

입건 양심 “경찰 음주 근무” 거짓 신고
○자신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관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이 음주 근무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Advertisement for hydrogen water,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Dongdaebada' (등대바다) seafood products, featuring a large fish and a building.